

로커스 · 지오인터랙티브, 중국 모바일게임시장 공동 공략



중국 무선인터넷시장에서 탄탄한 사업기반을 다져온 로커스가 모바일게임 전문업체 지오인터랙티브와 손잡고 모바일게임시장 공략에 나선다.

로커스의 무선인터넷 자회사 로커스이모션즈(대표 박낙원)는 지난 6일 지오인터랙티브(대표 김병기)와 중국내 모바일게임 퍼블리싱 협력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국내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현지법인 로커스커뮤니케이션즈서비스(LCS)를 통해 제2 이동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의 전국망 서비스 사업권을 확보한 로커스이모션즈는 지오인터랙티브의 모바일게임을 앞세워 현지 게임시장 선점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로커스이모션즈는 이와 관련, 연내에 지오인터랙티브 게임 20여 종을 론칭 시키고, 오는 2006년까지는 100여 종의 국산 모바일게임을 중국시장에 풀어 놓는다는 계획이다. 중국 현지에 사업권을 가진 한국계 서비스제공업체(SP)와 유력 모바일게임업체가 직접 '연합전선'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후코리아, 온라인 교육사업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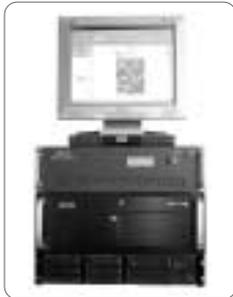


야후코리아(대표 이승일)는 지난 6일 유아교육업체인 한솔교육(대표 변재용)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온라인 교육 사업에 진출했다. 야후코리아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신기한 한글나라' '신기한 영

어나라' '재미나라' 등 한솔교육의 유아 교육과 게임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야후의 어린이 전용코너인 '야후꾸러기'의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일 대표는 "이번 제휴를 통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학습 모델을 제시, 신세대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온라인 교육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빌릿, 국산 IPCC 토탈 솔루션 출시



IPCC(IP 콘택트센터) 전문업체 빌릿(대표 김홍식)은 IPCC를 구성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개발 출시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빌릿의 IPCC 솔루션은 대용량의 인터넷전화(VoIP) 게이트웨이, IP PBX, CTI 서버, CTI DB 서버, CTI 애플리케이션 서버 및 상담원용 소프트웨어인 콘택트 매니저로 구성돼 있다. VoIP 게이트웨이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12개의 E1 채널

을 지원할 수 있으며 SIP를 이용, IP PBX와 연동된다.

IP PBX는 SIP, H323, MGCP를 지원하며 각종 호 처리 기능과 IVR 및 ACD(자동 콜 분배)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CTI DB는 시스템 관련 실시간 및 이력 데이터를 보관하며 오라클, MS-SQL, MySQL 등의 상용 및 오픈 서버 RDBMS를 지원한다. CTI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CTI DB와 연계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의 통제 및 데이터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종류의 통계를 지원한다. CTI 서버는 IP PBX, CTI DB 및 콘택트 매니저간에 필요한 모든 통신기능을 수행한다. 빌릿은 IPCC 솔루션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CTI관련 IP 보이싱 레코더, ACS, PBX 등 응용 제품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옵니텔, 한국DMB 주식회사 설립



모바일솔루션 및 콘텐츠 제공업체인 옵니텔(대표 김경선)은 지상파 DMB 사업권 획득을 위해 '한국DMB주식회사'라는 이름의 신규 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국DMB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등 국내 IT벤처업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의 회원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옵니텔은 이미 컨소시엄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회원사 및 신규참여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5~6월에 2~3차례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컨소시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DMB의 대표이사로 내정된 옵니텔 김경선 대표는 "한국DMB의 컨소시엄 구성원들은 국내 IT벤처를 대표할 뿐 아니라 디지털·모바일·멀티미디어 특성의 콘텐츠를 제작, 상용화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공중파 방송사를 포함한 타 경쟁사업자와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것으로 사업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터보테크, 컴퓨터 수치제어 컨트롤러 CNC 2종 출시

터보테크(대표 장홍순)는 공작기계용 컴퓨터 수치제어 컨트롤러(CNC)의 성능을 높인 '퓨전형' CNC시스템 2종을 선보였다.



이번에 내놓은 시스템은 개방형 제어시스템인 'IX시리즈'와 고정밀 및 고기능 제어시스템인 'GX시리즈'이다.

IX시리즈는 전용CNC 하드웨어와 함께 PC를 기본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기반의 개방형 제어시스템으로 고가의 전용하드웨어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또 GX시리즈는 고정밀 동작제어 및 고기능 순차제어기능을 동시에 탑재해 8채널 동시운전과 프로그램 감시 및 진단 기능까지 가능하다.

회사관계자는 "기존 하드웨어 기반의 CNC는 폐쇄성이 강해 호환성이 없지만 이번에 내놓은 두 제품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어 작동 및 제어가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파인디지털, 텔레매틱스 단말기 1000대 수출



파인디지털(대표 김용훈)은 중국의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첸룬인포메이션과 5억원, 1000대 규모의 텔레매틱스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해 중국시장 개척에 본격 나섰다. 파인디지털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텔레매틱스 단말기 '직통차'는 지난 2년간 중국 지형 실사를 통해 개발됐으며 오는 10월까지 중국의 상하이, 베이

징, 장쑤성, 저장성 등지의 첸룬인포메이션 매장에서 판매된다.

직통차는 터치 스크린 방식을 사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고 길 안내 서비스 및 과속카메라 알람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 생활정보 등의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텔레매틱스 시장은 월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대비해 중국 정부가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을 2006년부터 도입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철수연구소, V3 '마린블루스' 특별판 출시



안철수연구소(대표 안철수)는 인기만화 '마린블루스'의 저작권자인 김스라이센싱(대표 김준영)과 공동으로 V3백신 프로그램에 만화캐릭터를 접목한 'V3프로 마린블루스' 특별판을 개발, 지난 4일부터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안연구소는 지난 3월 출시한 'V3프로2004'를 바탕으로 특별판을 제작했으며,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만화 캐릭터들이 의사와 간호사로 등장해 알약으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장면을 넣는 등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에게 거부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V3프로 마린블루스'는 백신 기능을 비롯해 스팸메일과 애드웨어 차단 기능, 메신저 감시 기능 등을 갖췄다. 가격은 4만8400원(부가세 포함).

네오위즈, 온라인 시대 '新부모역할론' 교육

네오위즈(대표 박진환)는 경기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부모교육사업 후원 협정을 맺고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新부모역할론'을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문화에 익숙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인터넷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장벽을 낮춰, 보다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꾸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 온라인 문화현상에 대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내놓은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의 연구팀이 설계한 프로그램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크게 4단계로 ▲온라인 세대인 청소년기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표현하는 심리 ▲인터넷게임 등 온라인 문화의 특성 고찰 ▲달라진 온라인 세대의 학습활동 ▲온라인 세대에 맞는 리더쉽 등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부천, 남양주, 고양, 수원 등 경기도내 4개 지역에서 5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네오위즈 홈페이지(www.neowiz.com)나 경기도청소년상담실(031-237-1318)에서 확인할 수 있다.